

## 경 제

정답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③ 08 ⑤ 09 ⑤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③ 20 ①

### 해설

- 01** A는 정부, B는 기업, C는 가계이다. ② 정부는 민간 기업이나 가계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02** 제시된 그래프는 생애 주기 가설로, 평생 동안 소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소득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③ C 시점에서 저축액은 없지만, 누적한 저축액은 0이 아니다. ④ A~B 시기에는 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전의 부채는 감소한다.
- 03** 갑국 국민들이 외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소비재를 수입하여 소비한다고 해도 갑국의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은 변화하지 않는다. ‘국내 총생산 = 소비 + 투자 + 정부 지출 + 순수출’로 계산되므로 수입은 국내 총생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 04** 갑의 입장은 개입주의, 을의 입장은 비개입주의이므로 갑은 케인스, 을은 아담스미스의 입장이다. ⑤ 개입주의에서는 시장 실패를 이유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개입주의에서는 정부 실패를 이유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일 것을 주장한다.
- 05** 경제적 기본 문제 중 (가)는 생산물의 선택, (나)는 생산 방법, (다)는 분배 문제이다. <보기>의 ㄱ은 생산물 결정 문제, ㄴ과 ㄷ은 생산 방법 문제, ㄹ은 분배 문제가 나타난 사례이다.
- 06** 제시된 표는 모든 수출품의 가격 10% 인상에 따른 수출액(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 수입)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A재~D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다. A재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판매 수입이 10% 증가했으므로 판매량은 불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B재는 가격 상승에 따라 판매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C재는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판매 수입이 변화가 없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D재는 가격 상승했는데 판매 수입이 감소했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④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 경우 수출액이 감소하는 재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D재)이다.

- 07**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재화의 수출입과 수입액, 서비스 수출과 수입을 정리하면 오른쪽 표와 같다. 이를 통해 2010년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화 수출	100	110	120	130
재화 수입	-85	-70	-80	-100
상품 수지	15	40	40	30
서비스 수입	-60	-70	-80	-90
서비스 수출	80	60	110	100
서비스 수지	20	-10	30	10

- 08 A는 비례세, B는 역진세, C는 누진세, D는 비례세이다. ① A의 가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비례세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로, 비례세율이 상승하면 처분 가능 소득의 계층 간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⑤ 경기의 자동 조절 장치란 경기가 좋을 때 재정이 역할을 하여 과열되지 않게 하고, 경기가 냉각될 때 재정이 역할을 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에 효과적인 과세 제도는 비례세보다 누진세이다. 경기가 좋아져 증가한 소득은 소비를 자극하여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 이때 누진세를 통해 세율이 올라가면서 조세를 많이 걷게 되어 소비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다.
- 09 (가) 시기는 실제 성장률은 0%보다는 크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이고, 물가 상승률은 양(+)의 값이지만 4%보다는 낮다. (나) 시기는 실제 성장률은 0%보다는 크고 성장률이 커지는 시점이며, 물가 상승률도 양(+)의 값이고 4%보다는 낮지만, (가) 시점보다는 높다. (다) 시기는 실제 성장률은 4%보다 높으며 성장률이 커지는 시점이고, 물가 상승률은 4%를 넘고 있다(충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 시기는 실제 성장률은 4%보다 낮으며, 0%보다는 높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는 시점으로, 물가 상승률은 4%를 넘고, (다) 시점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 ⑤ (다), (라) 시기의 명목 GDP 증가율은 모두 양(+)의 값이다. 따라서 명목 GDP는 (라) 시기가 (다) 시기보다 크다. ('명목 GDP 증가율 = 실제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로 계산한다.)
- 10 (가) 시기에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목표치와의 차가 확대된다. (나) 시기에 국공채를 매입하면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목표치와의 차가 확대된다. (다) 시기에 국공채를 매입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므로 목표치와 차가 확대된다. (라) 시기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치와의 차가 확대된다.
- 11 A재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량은 일정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B재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므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일정하고 판매량이 증가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 12 ①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증가했으므로 10분위 분배율은 작아졌다. ② 로렌츠 곡선이 완전 평등선에서 멀어지고 10분위 분배율도 작아졌으므로 분배는 악화되었다. ③ 최하위 60만 명 중에서 최하위 40%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최하위 40~60%의 소득은 증가했다. ④ 최상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80%로 고정되었고, 총소득이 변함이 없으므로 소득액은 변함이 없다. ⑤ 최하위 60만 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은 감소했다.
- 13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일정하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는 취업자, (나)는 비경제 활동 인구, (다)는 실업자이다. ① 2011년의 실업률은 25%이다. ② 2011년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70%에서 80%로 증가했다. ③ 전업 주부나 학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인 (나)에 해당한다. ④ 확장 정책을 실시하면 실업자가 감소하게 된다. ⑤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14 ①, ② (가)와 (나)는 모두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므로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되었다. ③, ④, ⑤ (가)와 (나)의 경우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면 된다.

- 15 가. 농산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공급만 증가하면 농가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나. 수요만 증가해도 규제 가격을 넘지 못하면 '농가 소득 = 규제 가격 × 공급량'이므로 농가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다.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 규제 가격을 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출액 = 규제 가격 × 수요량'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지출액은 시장 균형 가격이 규제 가격을 넘기 전까지는 소비자 지출액이 증가하게 된다. 라. (다)의 경우 공급의 증가 폭이 수요의 증가 폭보다 큰 경우에는 규제 가격 하에서 초과 공급이 커지게 되므로 정부의 지출 부담이 커진다.
- 16 외환 시장에서 a, c, e는 곡선 상의 이동이므로 공급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b, d는 수요·공급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① a → d의 변화는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외화 공급이 증가할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의 유출 증가(수요 증가), 수출 증가(공급 증가)로 가능한 것이다.
- 17 갑, 을, 수, 수요 전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 증가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 대책으로 총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병, 정,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종류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환율의 상승을 들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총공급이 감소한다.
- 18 가. 균형점이 a에서 b로의 변동은 수요나 공급이 수평일 경우 가능하다. 나. a에서 c로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수직 곡선이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할 경우 균형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b에서 c로의 변동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므로 가능하다. 라. b에서 d로의 이동은 수요 증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19 수입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지만,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 20 갑국은 Y재를 특화하여 무역을 했고, Y재 1개와 X재 3개와 교환한 결과가 갑국의 소비 가능 곡선이다. 따라서 을국의 경우는 X재에 특화하여 무역을 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을국도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X재 1단위당 기회비용은 1/3Y재보다 커야 한다. 만약 Y재의 최대 생산량이 100개이면 Y재 1단위당 기회비용은 3X재가 되어 무역 이익이 없다. 따라서 Y재의 최대 생산량은 100개보다 적어야 한다. 나. 을국이 X재에 특화하므로 교역 이후 X재 1단위를 주고 기회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야 무역 이익이 생기므로 무역 이후 X재 1단위당 기회비용은 커진다. 다. 교역 조건이 X재 : Y재 = 3 : 1이므로 을국이 Y재 50개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갑국에 X재를 150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을국은 무역 후 Y재 50개와 X재 155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없다. 라. 을국은 Y재 1개에 대해 X재 3개를 주어도 이익이다. 따라서 X재를 2개만 주는 조건이면 당연히 무역에 참가할 것이다.